

휴켄스, 희질산 70만톤 세계3위

730억원 No.4 40만톤 완공 ... 한국BASF에 공급 매출 400억원

휴켄스가 No.4 희질산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휴켄스는 희질산 공장 완공에 따라 10월15일경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질산 4공장은 730억원을 투입해 2001년 착공했으며, 생산능력은 40만톤으로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시험가동했다.

No.4 희질산 공장은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이며 1-3공장을 합한 총 생산능력은 70만톤으로 이집트와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이다.

휴켄스의 희질산 증설은 2001년 2월 인근 한국BASF 여수공장과의 장기 질산 공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400억원의 추가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질산제품은 농도 60-70%의 희질산과 98% 이상인 농질산으로 구분된다.

<Chemical Journal 2003/10/15>